

(가칭)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 4차 회의록

일시 1/18(수) 13:30

장소 장위1동 주민센터 2층 강의실

참석[준비위원] 고경남, 김경서, 김기민(간사), 김종건, 박정근, 박정애, 배정학, 서정례, 이선영, 홍수만(의장) 등 10인

위임 김종환, 송민기, 유제훈, 이미경, 정윤주, 황선영 등 6인

참석[신규] 이원교 등 1인

참관 은현기(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마을기획팀)

기록 김기민

- 성원 확인
 - 총원 : 25명
 - 출석 10명 + 위임 6명 = 참석 16명
 - 불참 : 19명
 - 현장 출석과 위임 포함하여 참석자가 16명으로 과반수인 13명 이상 참석함에 따라 4차 회의가 성원됨

- 전차 회의록 낭독 : 17/1/4(수) 준비위 3차 회의록 (별첨)
 - 낭독 : 간사
 - 동네공간 이용
 - 앞으로 준비위 회의도 동네공간에서 하게 되는지? (고경남)
 - 회의는 아니고, 사무 공간으로만 이용함 (김기민)

- 현황 공유
 - 신규 참석자 소개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원교 님
 - 준비위원 구성 변동
 - 신규 : 이원교(17/1/18)
 - 사임 : 김진태(16/11/24), 목영애(17/1/17)
 - 1/18(수) 4차 회의 현재 기준 준비위원 명단 (별첨)
 - 지출 내역 : 준비위 4차 회의 다과비 12,300원 (CU장위동방점)

- 안건 : 준비위 4차 회의 안건지 (별첨)

- 출석 및 위임을 통해 성원은 되었으나, 정관 제정을 현재 상태로 추진하는 것이 옳을지 논의가 필요 (홍수만)
 - 다음 번에도 성원이 안되면 또 미룰 건지. 모인 상태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박정근)
 - 동의한다.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 (이선영)
 - 동의한다. (서정례)
 - 생업에 종사하면서 참여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정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참석 현황이 널뛰는 경향이 없지 않은 상태.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준비위원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홍수만)
 - 연락을 해보았는지? (서정례)
 - 연락했다. (홍수만)
 - 준비위원회 결성 초기 격주 수요일 13:30으로 정한 일정 변경이 필요할지? (홍수만)
 -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했을 때 결정한 사항. (서정례)
 - 저는 회의 일정을 수요일 오후로 결정했을 때 연간 계획에 반영해서 수요일엔 가급적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이선영)
 - 변경 없이 기존 결정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김기민)
 - 정해진 일정이 있고, 그 약속에 기반해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위임 포함하여 현재 출석한 준비위원 규약 2차 수정안 검토하고 수정 의견 반영하여 3차 수정안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임 및 불참 준비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는 것으로 결정한다.
 - 회의 일정은 기존대로 유지. 대화방에 답변 없고 불참하고 계신 분들은 의장이 직접 전화하여 이후 참여 지속 여부 확인하겠다. (홍수만)
- 규약안 2차 수립안 검토 (별첨)
 - 총회, 운영위원회, 분야별 분과모임 등 조직 내 회의 체계를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 제3장 회의 하부 구조에 총회, 운영위원회, 분야별 분과모임이 들어가야 할 것. (김종건)
 - 그럼 제3장이 굉장히 비대해진다. (김기민)
 - 타 단체, 네트워크의 정관, 규약을 검토해봤는데 꼭 회의 장 아래 총회, 운영위, 분과모임 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홍수만)
 - 총회, 운영위, 분과모임에 대한 규정은 기존대로 하고, 제1장 총칙 제5조(회의)를 추가해서 조직 내 회의, 소통 체계에 대해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김기민)
 - 회의 체계 분류시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들어가야 할지? (김종건)
 - 제3장 총회에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명시되어 있다. (김기민)
 - 제1장 총칙 제5조(회의) 항목 추가하기로 결정
 - 제2장 제5조(회원의 자격과 권리) 와 제7조(회원가입)과 상충될 수 있다. (이원교)
 - 가급적 문호를 열고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 (홍수만)

- 제20조(운영위원회의 대표) 대표의 권한, 역할, 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이원교)
 - ‘대표는 추진단 및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등 대표의 권한, 역할, 책임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추가하기로 결정
 - 오늘 검토한 내용을 전체 대화방에 공유하여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최종 승인을 받기로 결정함 (홍수만)
- 회비 및 재정 관련
- 재정 마련 방법 : 회비, 기부금, 사업비, 전입금(지원금) 등
 -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자원 규모, 마련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김종건)
 - 동네공간 분담금은 어느 정도 부담하면 좋을지? 이걸 공간 이용하는 김기민 간사 의견에 따라 결정하면 좋겠다. (김종건)
 - 월 분담금 20,000원 제안함 (김기민)
 - 간사 의견에 따라 동네공간 월 분담금 20,000원 결정. 지출에 대한 결정은 내려졌고, 금액 부분만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가 승인 없이 확정된 것으로 함.
 - 준비위 회비는 준비위원 1인당 월 10,000원으로 함. 참석/불참 관계 없이 준비위원은 월 1회 납부 의무화 결정.
- 운영규약상 주요 사업 논의
- 협치리더는 무엇인지? (김경서)
 - 협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 리더를 의미함. (홍수만)
 - ‘협치 주민리더 발굴을 위한 교육 및 협치 활동 전반에 관한 홍보’로 정정 제안 (김기민)
 - 협치 리더 교육 관련해서 마을민주주의과 산하 마을시민교육센터에서 담당하면 좋겠다는 의견. (홍수만)
 - 시민협력플랫폼, 지역사회혁신계획 등과 같은 협치 사업은 추진단과 관이 진행하면 되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민관 협력 사업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경서)
 - 추진단 구성원이 관공서와의 사업을 진행할 때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해관계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기민)
 - 추진단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관 협력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 (홍수만)
 -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할 것. (김경서)
 - 추진단이 개별 기업, 단체들의 사업들과 경쟁하고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 협치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 (김종건)
 - 분야별, 부문별로 진행되는 민관 협력 사업 체계 내에서 다양한 개선 의견들이 있지만, 반영되어 개선되는 제도는 없는 형국. 추진단은 이런 분야별 부문별 시스템, 관행, 제도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민/관 각각 전략과제들이 있을 뿐 민관을 포괄하는 전략과제는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홍수만)

- 제도개선, 정책제안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면 목적, 목표가 명확해지는 것 같다. (김경서)
- 민과 관의 관점상의 간극, 시간 계획상의 차이들을 어떻게 좁히고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추진단의 역할이 있다. (홍수만)
- 1단계 조직화, 2단계 민관 상호 조정, 3단계 구의회까지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축 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홍수만)
- 협치 주민리더 교육 준비되면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 (김종건)
- 상기 사항 반영하고, 나머지는 기존안대로 확정.

○ 분과 구성 및 조직화

- 복지문화(국) : 이원교, 임진규
- 도시환경(국) : 이종안
- 안전건설교통(국) : 김종건, 배정학
- 기획경제(국) : 김종환, 김태석, 유제훈, 한정혜
- 마을재생(기획단) : 고경남·이미경, 김경서, 이선영, 정윤주
- 보건(소) : 박정근, 서정례
- 인권 : 김희자, 박현숙
- 교육 : 박정애, 송민기
- 그 외 전략과제 및 주민 욕구 반영한 분과 추가 조직 가능

● 기타

- 현재 준비위가 다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단위들과 함께 가야 한다. (김종건)
 - 문호 열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알고 있고 인정한다.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은 추진단 조직 설립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현재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언젠가 꼭 모셔야 하고 그럴 것. 그 분들을 잘 모셔오기 위해서라도 조직 설립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 (박정근)
 - 적극 섭외하고 초대하려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다. (김경서)
 - 기획단 단계에서는 홍수만, 김기민 등 소통책임자 중심으로 분야별 관계자들을 찾아가 만나거나 간담회를 열었지만, 분과 체계가 확립되면 각 분과 중심으로 분야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초대하는 작업 해야 한다. 준비위 임원이 지원하고 도울 수는 있지만 책임 주체가 되어 그 역할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안 된다. (김기민)
 - 각 분야별로 분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것. (홍수만)
- 동북4구 신년 음악회 홍보 (은현기)
 - 1/24(화) 18:30~20:00 플랫폼 창동 61, 2층 레드박스
 - 협치 민간 단위에서 참여해주었으면 좋겠다.

- 협치 단위에 6석 할당
 - 2017년 6대 전략과제, 1 특별 정책과제 참고 자료 공유 (은현기)
 - 파일 추후 공유 예정
 - 구청 내 10개 T/F팀 구성, 마을민주주의과장이 총괄
 - 민간 추진단 결성하게 되면 관과 함께 협력회의 가지면 좋겠다.
 - 회비 납부(현장) : 박정근 준비위원 (10,000원)
- 5차 회의
 - 일정 : 2/1(수) 13:30~15:30
 - 장소 : 안암동 주민센터/자치회관 4층 강의실(확정)
 - 안건
 - 조직 명칭 확정
 - 규약(안) 3차 수립안 검토 및 확정
 - 기타 사항
 - 사전 불참 통보 : 김종건 준비위원님